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“교통, 안전·일자리 창출에 힘 쏟아야”

5일 한국교통연구원 간담회서 학계·민간 혁신기업 의견 함께 수렴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5일(월)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**교통안전 강화방안**과 **교통 분야 혁신 성장 방안**에 대해 논의했다.
 -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**대한교통학회, 손해보험협회, 카카오모빌리티, KT**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
-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우리나라의 교통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**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정체는 여전하며, 교통사고 사망율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**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
 - “**교통안전을 대폭 강화**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,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출·퇴근 시간은 줄이고 **교통비 부담은 경감**시켜드릴 수 있는 교통 정책들을 추진하겠다”면서,
 - 이 과정에서 **한국교통연구원**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살펴보고 제언하는 등 **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**을 당부했다.
- 아울러, 김 장관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“**운수업은 고용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**”고 강조하며, “**운수업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,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**”고 강조했다.

2018. 2. 5.

국토교통부 대변인